생생 진료실

척추·관절과 뇌 건강 치료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다
과학으로 확장하는 한의학의 미래

대전 필한방병원

대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의료 거점

대전광역시 서구, 도심의 활기 속에 자리잡은 '필한방병원(대표원장 윤제필)'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언제든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으로 통한다. 365일 연중무휴 진료와 평일 야간 진료라는 과감한 시스템을 도입한 덕분이다.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바쁜 일상으로 병원 방문이 쉽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필한방병원은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접근성만 좋은 게 아니다. 필한방병원은 모든 의료진이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수련한방병원으로 인턴 수련 과정을 운영할 만큼 역량도 검증받았다. 대전을 대표하는 한방병원 중 하나로 각광받는 이유다.

필한방병원을 설립한 윤제필 원장

세계가 주목한 '한의학', 그 중심을 향하여

필한방병원을 설립한 윤제필 원장의 이력은 독보적이다. 그는 과거 자생한방병원 미주 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미국 현지에 10개의 분원을 설립했다. 추신수·류현진 선수 등 메이저리거와 PGA, LPGA 스타 선수들의 전담 주치의로 활동하며 스포츠 한의학의 위상을 높였다. 그랬던 그가 대전에서 한방병원을 설립한 이유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립한 자신의 의료 철학을 온전히 실천하고 싶은 의지 때문이다.

그의 의료 철학은 젊은 시절 경험한 해외 의료 봉사에서 싹텄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KOICA 국제협력의사로 3년간 근무하며, 세계인들이 침술을 중국의 전유물로만 인식하는 현실을 목격했다. 당시 '오리엔탈 메디슨(Oriental Medicine)'이라는 한의학의 영문명이 주는 모호한 이미지부터 바로잡고 싶었다. 귀국 후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이사를 역임하며 '코리안 메디슨(Korean Medicine, KM)'이라는 명칭의 공식화를 이끌며 한의학의 독자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섰다.

"2017년 필한방병원 설립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을 거치며 고민해 온 한의학의 미래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에서 출발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프라와 기술을 결합한 양·한방 협진 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 의료진이 배우러 오게 하고 싶습니다."

도전하다
한국건강산업협회
THE KOREA ASSOCIATION OF HEALTH INDUSTRY
주최
후원
BNK 부산은행

2024년 한국건강산업협회 세미나 현장

이름에 담긴 철학, 전국으로 확장

필한방병원의 이름에도 윤 원장의 철학이 명확히 드러난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fill), 내 집 같은 편안한 느낌(feel)을 주고, 지역 사회에 반드시 필(必)요한 병원'이 되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의학을 보편적인 의료로 확장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의지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을 넘어 청주필한방병원이 개원했고 광주에도 설립 중이다. 전국 단위 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간호데스크 NURSE STATION

4층병동

데이터와 과학으로 한의학의 문턱을 낮추다

필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신뢰를 얻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원스톱 협진 시스템'이다. 환자가 내원하면 X-ray 촬영은 물론, 필요한 경우 인근 종합검진센터와의 연계해 MRI·CT 검사까지 신속히 진행한다. 이러한 현대의학적 진단을 병행해 한방재활의학과, 내과, 침구과 등 각 분야 전문의들이 협진해 치료 계획을 수립한다.

필한방병원에는 특히 척추·관절 통증 환자의 비중이 높다. 목·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무릎관절염과 같은 만성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수술 후 통증 관리,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 치료에 강점을 보인다. 침·약침·추나요법·한약치료에 도수치료와 물리치료 등 현대 재활치료를 병행해 환자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린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불필요한 수술과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 회복 속도를 높인다. 이외에도 항암면역클리닉, 교통사고 후유증 클리닉, 수술 후 회복 클리닉 등을 운영하며 치료 영역을 넓히고 있다.

3층 도수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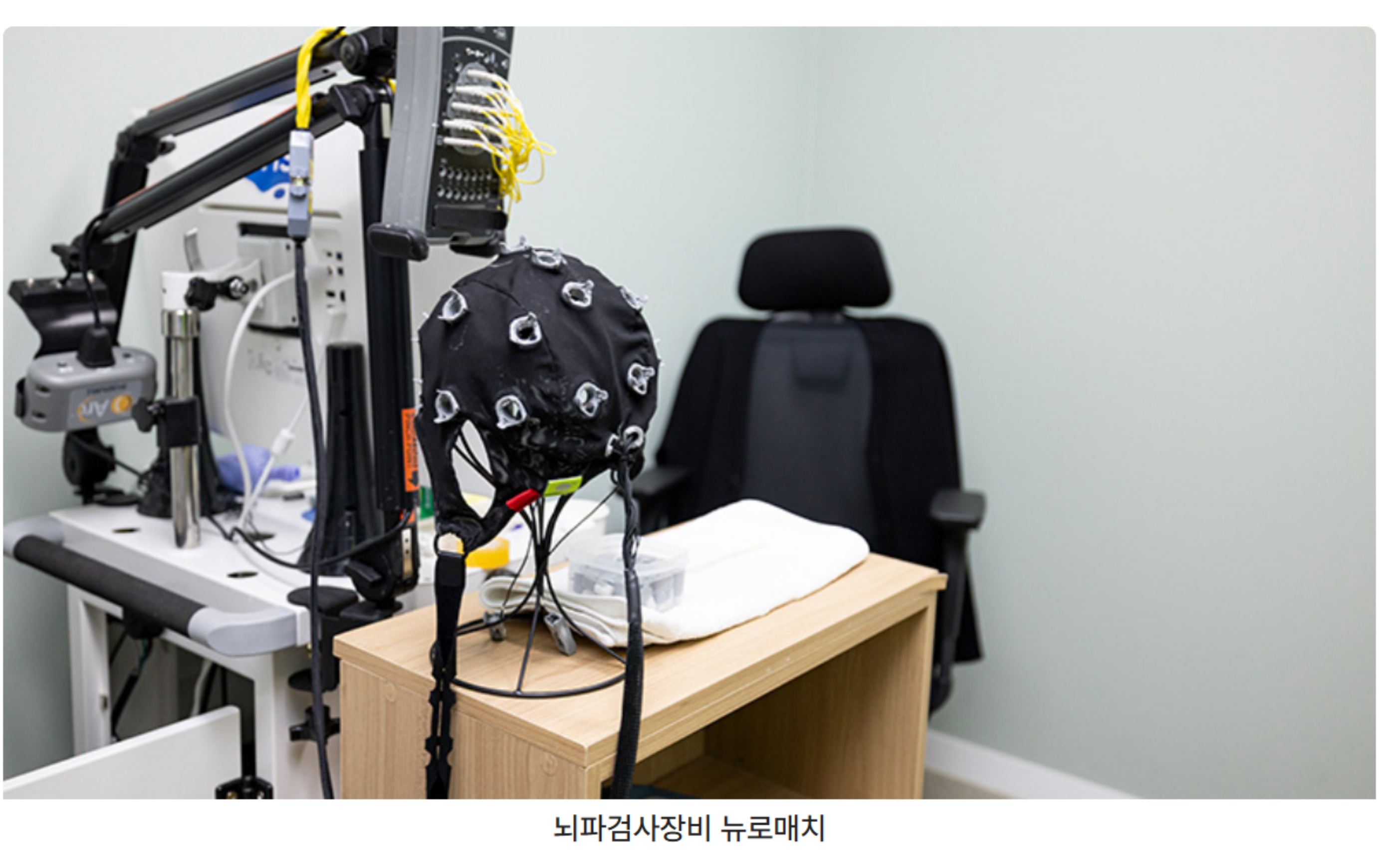
AI 기술과 뇌과학으로 여는 한의학의 미래

"한의학의 강점은 예방의학입니다. 치명적일 수 있는 뇌 질환을 미리 관리할 수 있다면 한의학의 역할도 훨씬 다양해질 것입니다."

필한방병원이 주목하는 미래 분야는 '뇌 건강'이다. 뇌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된 핵심 요소로, 뇌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대 한의학의 핵심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필한방병원은 뇌건강센터를 신설하고 스탠퍼드대학교 이진형 교수가 창업한 벤처기업 '엘비스(Elvis)'와 협력해 AI 기반의 뇌 기능 분석 시스템인 '뉴로매치'를 한방병원 최초로 도입했다.

뉴로매치는 19채널 뇌파를 측정해 뇌의 활동 상태를 3D 영상으로 구현하고, 치료 전후의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첨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ADHD, 우울증, 수면장애부터 파킨슨병 등 난치성 뇌 질환까지 데이터 기반의 정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뉴로매치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뇌 건강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치료 경과에 따른 변화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필한방병원은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한국한의학연구원(KIOM)과 함께 뇌 건강 관련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며 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발표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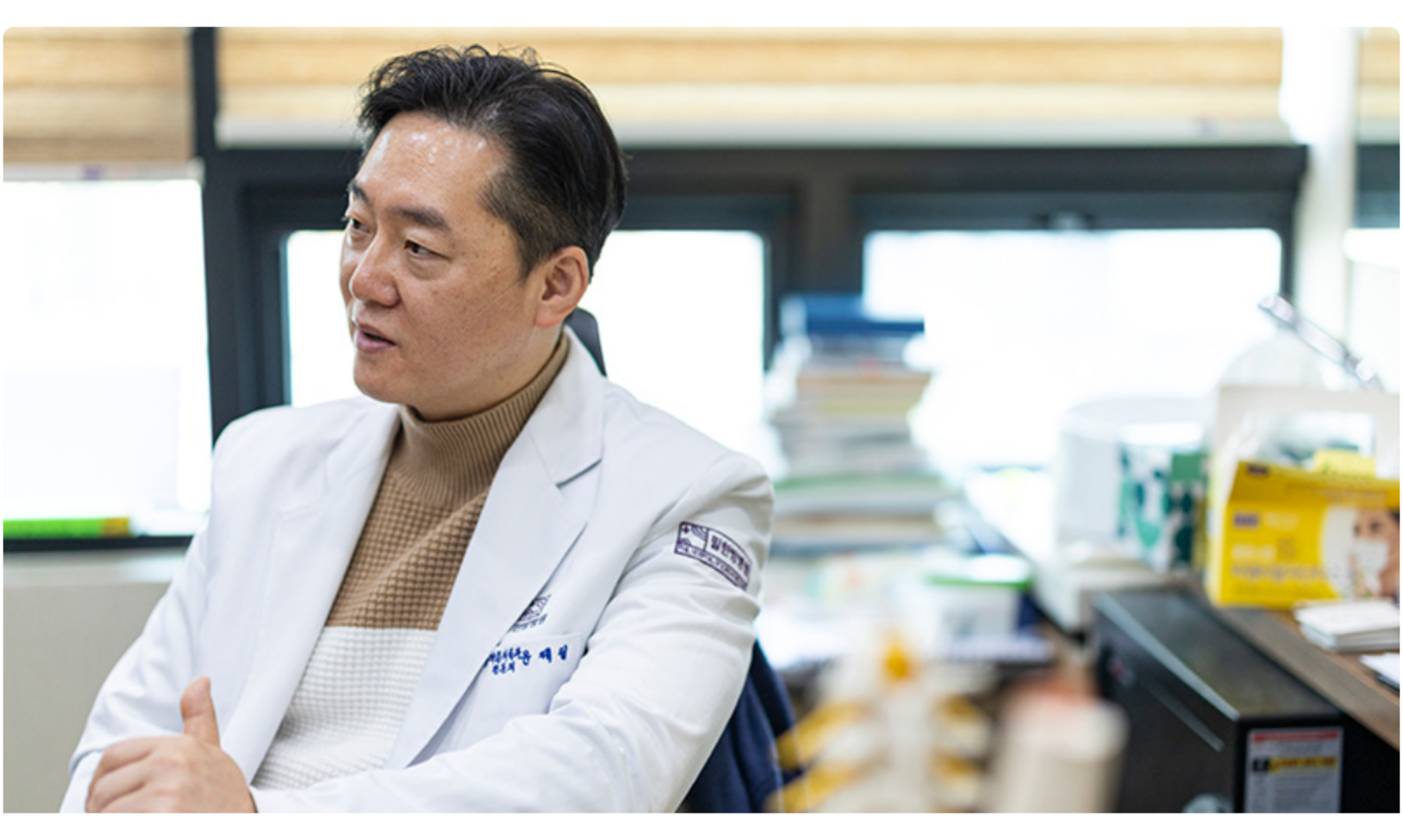
뇌파검사장비 뉴로매치

환자 중심의 배려,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환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은 병원의 공간에서 드러난다. 한 층(70개 병상)은 여성 전용 병동으로 운영되며 공동간병실 운영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췄다. 또한 365일 진료와 야간 진료 시스템 역시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해외 환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몽골, 일본, 필리핀 등지에서 매년 단체 환자들이 방문해 추나 요법과 미용 침 치료를 받는다. 윤 원장은 매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지로 해외 의료 봉사를 주관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진정한 한의학의 세계화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부러워하고 배우러 오고 싶은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윤 원장의 말처럼, 대전 필한방병원은 오늘도 데이터와 진심을 결합해 한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다.